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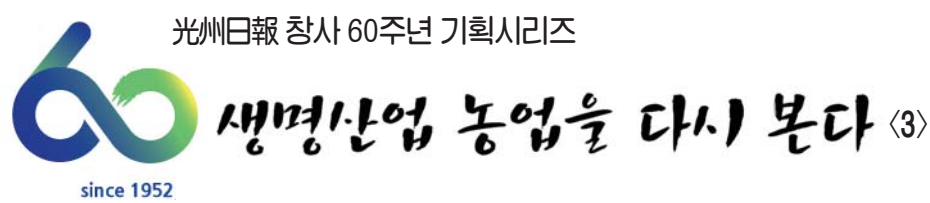
기획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와 쌀 소비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이 고착화되면서 아직시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품목 다변화가 쌀 중심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경지면적 53%인 쌀농사, 농업생산 비중은 고작 24%



〈1부〉 농업, 포기할 수 없다

② 쌀 중심 생산구조 개선 필요

소득을 59%로 특용 70%·과수 65%보다 떨어져

야적시위 연례화... 대체작물 확대 생산성 키워야

전남 농업축산물 생산액 추이 (단위: 원)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생산액	6조5569억	7조7435억	8조5649억
농산물(식량작물)	4조8260억(2조1931억)	4조8971억(1조9831억)	5조4683억(2조746억)
축산물	1조7309억	2조2051억	2조4448억
임산물		6531억	7418억

2011 쌀 대체작물 품목별 재배면적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콩	조식료	다년생 (인삼·도복 등)	고추	옥수수	배추	대파	감자	가공용 벼	들깨	고구마
면적(ha)	1만2829	4876	3586	2992	1546	1479	1264	1099	859	831	429
비율(%)	34.5	13.1	9.7	8.1	4.2	3.9	3.4	3.0	2.3	2.2	1.2

아직도 농업하면 벼농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전통적으로 논농사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눈에 버릴 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통일벼를 통해 획기적 증산에 성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농업=벼(쌀)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이 전까지 보릿고개에 시달려온 터라 통일벼의 등장은 일가에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도 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30년간 우리 농업은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벼의 높은 생산성에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지구촌은 UR라운드와 FTA로 이어지는 농업시장 개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농업은 벼중심의 생산구조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됐다. 적절한 시기에 쌀을 대체할 작목을 개발하지 못한 탓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농가 중 70.7%가 벼농사에 관여하고 있다. 또 전체 경지면적 중 53.2%인 93만여 ha가 쌀 생산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에 그친다. 86만 농가가 쌀에 매달려 9조3800억원 어치를 생산하고 있으나 농가당 매출은 겨우 1090만원에 불과하다.

쌀에 편중된 농업 생산구조는 전남도 마찬가지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볼때 도내 농업(농림축산물)의 총생산액은 8조654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식량작물과 화훼·과수·특용작물·채소 등 농산물 생산액이 전체의 63.1%인 5조46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소·돼지 등 축산물은 28.2%인 2조4448억원, 목재·약용식물 등 임산물은 8.6%인 7418억원을 연간 생산했다.

생산액을 농산물로만 쫓아보면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7.9%(2조746억원)이었다. 특히 쌀 생산액은 1조7126억원으로 식량작물 전체 생산액의 82.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농업대비 농산물 비중은 2008년 45.4%(4조8260억원)이던 것이 2009년 40.4%(4조8971억

원)로 줄어든데 이어 2010년에는 37.9%(2조746억원)로 줄었다. 식량작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84.8%(1조8608억원)에서 2009년 87.4%(1조7346억원)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82.5%(1조7126억원)로 다시 감소했다. 농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농산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쌀 중심의 생산구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쌀은 소득율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떨어진다. 소득율은 생산액은 물론 쌀값에 따라서도 변동되지만 2010년 쌀의 소득율은 59.2%로 특용작물(69.9%), 과수(65.0%), 채소(63.0%) 평균 소득율보다 떨어졌다.

정부는 이처럼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쌀 생산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고 품목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논에 쌀 대신 옥수수·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당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9만8000여 농가가 3만7198ha의 논에 쌀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해 12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10년만에 이뤄진 쌀값 상승과 일부 품목의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올 들어서는 대체작물 정책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대체작물 지원 면적을 4만ha로 늘리기 위해 1202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영농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현암씨(46·나주시 다시면)는 “2000평의 논에 쌀 대신 콩을 심으려고 하는데 면에서는 지원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칙을 구해 놓으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말로 정부 보급종 법칙 신청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농민회 관계자는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 개편에는 찬성이지만 식량주권 차원에서 쌀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며 “다구나 구조 개편에 믿음을 주려면 일관적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품목 분류

채소인 감자·고구마 식량으로

버섯도 농작·임산물 기준 애매

농업부문의 품목분류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품목 다변화를 막는 요인이란 지적이 높다.

대표적인 품목이 감이다. 감은 ‘농업통계조사규칙’에는 과수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도 지정돼 있다. 과수지만 임산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농지나 초지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임산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재배지가 농지인지 산림인지 등에 따라 임산물로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재배지가 농지인지 산림인지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데 있다. 이렇다보니 뽕은감은 임산물, 농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단감은 농작물로 취급된다. 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뽕은감은 임산물로 산림청이 담당하고, 단감은 과수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농작물과 임산물로 나뉜다. 느타리·양송이·팽이·영지 등은 농작물이지만 송이·표고·능이·목이 등은 임산물인 산림버섯으로 구분된다. 재배와 자생 여부가 농산버섯과 산림버섯 구분의 잣대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뽕은감은 단감·대추 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지에서 재배와 산림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버섯에 속하는 표고버섯도 원목보다는 배지(培地) 사용 비율이 점차 늘어날 정도로 재배가 일반화돼 있다.

감자와 고구마도 채소로 유통되지만 식량작물의 한 부류인 서류로 돼 있다. 감자와 고구마는 전시에 식량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진석씨(해남군 산이면)는 “식량작물로 분류돼 있는데도 쌀·콩 등 다른 식량작물처럼 수매나 소득보전의 대상이 아니다”며 “과잉재배시 산지폐기를 통해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점) 삼일로 입구: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구: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구: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입구: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구: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구: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입구: 031-821-6655 안양점(안양시청) 입구: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구: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입구: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입구: 031-378-4183 부천점(부천역) 입구: 032-229-4400 남양주점(평내로) 입구: 070-8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역) 입구: 051-819-8800 서면A점(서면A) 입구: 051-256-7200 울산점(울산역) 입구: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구: 055-291-8060 진주점(중앙로) 입구: 055-745-9870 대구 동문점(동문네거리) 입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입구: 053-425-7576 경북 포항점(포항역) 입구: 054-244-5110 안동점(구.진동농고) 입구: 054-659-2248 광주 광주점(광주역) 입구: 062-225-5110 광주점(백담동) 입구: 062-954-4477 광주점(송정동) 입구: 061-752-9245 전북 전주점(전주역) 입구: 056-225-5110 군산점(군산역) 입구: 053-446-1188 익산점(익산역) 입구: 053-638-6200 남원점(남원역) 입구: 053-632-3628 대전 대전점(도청) 입구: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 입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구: 042-255-93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입구: 041-553-2888 공주점(공주역) 입구: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입구: 043-253-5110 제주 제주점(경명로) 입구: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청점 세기보청기	광주 박문광장점 세기보청기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문의전화 (062)651-4477	문의전화 (061)752-8845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구도청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박문광장점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영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영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영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